

---

#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

---

2018. 6.

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

## 목 차

|  |    |
|--|----|
| I . 개 요 .....  | 1  |
| II . 감독기준 주요내용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|
| 1.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지표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|
| 2. 적격자본과 필요자본 : 기본항목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|
| 3. 적격자본과 필요자본 : 차감 · 가산항목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3  |
| III . 시행 일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|
| <참고 1> 비은행지주 신용공여 · 주식취득 한도규제 개요 .....               | 8  |
| <참고 2> 비은행지주 sliding scale / 15% · 60% rule 개요 ..... | 9  |
| <참고 3> 금융업권별 집중위험 한도규제 개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<참고 4> 거액 익스포져 등 한도규제 국제기준 .....                     | 11 |
| <참고 5>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개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 |
| <참고 6> 바젤 III 운영리스크 산정기준 개요 .....                    | 13 |
| <참고 7> 은행지주 리스크평가제도 개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4 |

# I 개 요

## □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「금융그룹 감독원칙」의 핵심

\* 은행(BCBS), 보험(IAIS), 증권(IOSCO) 등 국제 금융감독규범 정립기구와 각국 금융 당국으로 구성된 금융그룹감독 국제규범 협의체('99년 결성)가 '99년 공개

- 「금융그룹」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필요자본 외에 그룹리스크를 감안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함

## □ 금융그룹 자본규제는 업권별 금융규제로는 포착·걸러내기 어려운 “그룹차원”의 “추가적”인 금융위험이 감독대상

### < 자본규제의 규제대상 금융위험 비교 >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b>① 업권별<br/>금융감독</b></p> | <p>▶ <b>개별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위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거래상대방 위험(counter-party risk) : 거래상대방의 상환 및 결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</li> <li>• 시장위험(market risk) : 자산·부채(부외항목 포함)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</li> <li>• 운영위험(operational risk) :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, 인력, 시스템 및 외부사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</li> </ul>          |
| <p><b>② 금융그룹<br/>감독</b></p>  | <p>▶ <b>금융그룹 전체로서의 그룹위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본의 중복이용(multiple gearing) :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를 통해 외부자금 수혈 없이 가공의 자본을 창출</li> <li>• 위험의 집중(risk concentration) : 계열사별로 따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, 그룹 전체로 합하면 위험이 과도하게 한 군데 집중</li> <li>• 계열사간 전이위험(risk contagion) : 계열사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, 다른 계열사까지 동반 부실화</li> </ul> |

☞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을 토대로 통합감독제도의 핵심요소인 자본적정성 감독기준(안)을 마련

## II 감독기준 주요내용

### 1.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지표

□ 금융그룹 전체의 「적격자본」이 「필요자본」 이상이 되도록 관리

$$\text{자본적정성 지표} = \frac{\text{적격자본 (①자본합계 - ③차감항목)}}{\text{필요자본 (②최소요구자본 + ④⑤가산항목)}} \geq 100\%$$

| 적격자본 (① - ③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요자본 (② + ④ + ⑤)  |
|--|---|
| <b>① 금융계열사 자본 합계</b><br><b>③ (-) 중복자본 차감</b> | <b>② 금융업권별 최소요구자본</b><br>* 비규제 금융회사의 경우 대안지표(proxy)로 산출한 최소요구자본 (총자산의 8%)<br><b>④·⑤ (+) 그룹위험 가산 : ④집중위험, ⑤전이위험 반영</b> |

### 2. 적격자본과 필요자본 : 기본항목

#### ① 자기자본 합계액

- (자본규제 대상 금융회사) 각 금융업별 자본규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자기자본의 합계액\*

\* 예) 보통주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,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

- (자본규제가 없는 금융회사)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(영업권 등 차감)을 합산\*

\* 예) 대부업자, 금융업밀접회사, 자본규제가 없는 외국 금융회사 등

#### ② 금융업권별 최소요구자본

- (자본규제 대상 금융회사) 각 금융업별 자본규제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자기자본의 합계액

- (자본규제가 없는 금융회사) 필요자본 대안지표(proxy)로서 대차대조표상 자산(부외자산 포함)의 8%를 필요자본으로 산정

### 3. 적격자본과 필요자본 : 차감 · 가산항목

#### ③ 자본의 중복이용 (multiple gearing) : 적격자본 차감

◇ 금융그룹의 자본 중 위기상황에서 실제 손실충당에 사용하기 어려운 허수의 자본은 적격자본으로 불인정

- (금융계열사간 출자) 외부로부터의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금융그룹내 출자\*를 통해 장부상 생성된 자본은 제외

\* 보통주, 우선주, 후순위채권, 신종자본증권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개별 금융업 감독기준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모든 유형을 포괄

- (상호 · 순환 · 교차출자 등) 금융계열사간 직접출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 자본에서 제외

- (교차출자) 금융그룹이 다른 회사와 자본증권을 상호 보유하는 경우로서 제3자 처분제한 약정으로 자본증권의 처분이 제약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자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\*

\* 금융그룹이 손실보전을 위한 완충자본 활용 가능성 등 소명시 자본 인정

- (순환출자) 금융회사가 다른 비금융계열사 등을 경유하여 해당 금융회사나 금융계열사에 순환하여 출자하는 경우 (실질은 금융계열사간 출자)

#### ④ 집중위험 (risk concentration) : 필요자본 가산

◇ 금융그룹의 노출된 금융위험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필요자본을 요구

#### [ 관리대상 집중위험의 유형 ]

- (산업별 · 지역별) 주요 산업별(표준산업분류) · 지역별(해외투자의 경우) · 위험유형별 · 투자유형별 익스포저의 총합계액 산정 · 관리\*

\* 예) 부동산관련 익스포저 비중, 중국 · 동남아 익스포저 비중 등

- (거래상대방별) 특정 거래상대방(특수관계인 포함)에 대한 익스포저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\* 점검·관리 (거액 익스포저)

\* 예) A 기업(관계계열사 포함)에 대한 대출 등 익스포저 합계액이 금융그룹의 자기자본의 일정수준(예: 25%)을 초과하는 경우

- (관계자 거래) 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와의 거래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만큼,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와 별도로 관리
- (비금융계열사 출자) 비금융부문 부실의 전이 가능성을 감안, 비금융계열사 출자액(개별사 및 합산액)을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

### [ 집중위험의 측정 기준 ]

- (익스포저) 신용공여, 주식취득 등 거래유형을 불문하고 금융그룹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 노출액
- (합산대상) 소속 금융계열사의 개별 익스포저를 모두 합산

### [ 필요자본 가산기준 ]

- (집중위험 한도) 금융그룹 자본규제의 도입영향, 이행강제수단 여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

i) (모범규준 적용기간) 금융그룹별 집중위험 크기는 모니터링하되, 필요자본 가산은 미적용 ('18.7~)



ii) (통합감독법 제정) 집중위험 한도초과분에 대해 필요자본 가산 ('19~'20)

- 필요자본 가산방식은 입법과정에서 논의하되, 업권별 규제형평성을 감안하여 비은행금융지주사 규제방식의 준용 추진



iii) (중장기 과제) 향후 금융권 집중위험 관리제도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단일규제방식 도입 검토 ('20~)

**< 금융그룹 집중위험 관리제도의 필요자본 가산기준(안) >**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요자본 가산기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① 모범규준 시범운영<br>(‘18.7월 ~ ) | ※ 필요자본 가산 : 미적용  |
| ② 통합감독법 시행<br>(‘19 ~ ‘20년) | <p>▶ <b>비은행금융지주사 규제방식 준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주주·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: 업권별 규제한도 가중평균 (참고 1)</li> <li>·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 : 업권별 규제한도 가중평균 (참고 1)</li> <li>· 비금융계열사 출자한도 : 출자액 비중에 따라 필요자본 차등 가산 (sliding scale 방식) (참고 2)</li> </ul> <p>※ 필요자본 가산 : <b>한도초과분 × 100%</b><br/>(비금융계열사 출자한도는 sliding scale 방식 적용)</p> |
| ③ 금융법령 정비이후<br>(‘20년 이후)   | <p>▶ <b>금융권 집중위험 관리제도 정비(안)</b> (참고 3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주주 익스포저 : 금융그룹 자기자본의 <b>25% 이하</b> (참고 4)</li> <li>· 비금융계열사 출자한도 : 금융그룹 자기자본 대비 개별사 <b>15%, 합산액 60% 이하</b> (참고 2)</li> </ul> <p>※ 필요자본 가산 : <b>한도초과분 × 100%</b></p>   |

- (중복제외) 개별업법 집중위험규제에 따라 이미 필요자본에 적립된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차감
- (한도초과 효과) 건전성 규제인 점을 감안, 한도초과분에 대한 필요자본 가산만 요구 (한도초과분 해소방식은 금융그룹이 선택)

**[ 적용범위 ]**

- 새로 도입되는 금융그룹 집중위험 한도관리제도는 원칙적으로 ‘18.7월 이후 신규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\*

\* 향후 입법안 시행시 ‘18.7월 이후 신규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미적용

- ‘18.6월말 현재 이미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향후 통합 감독법 입법과정에서 경과규정을 별도 검토\*

\* 경과규정(안) : 한도초과분에 대한 필요자본 가산은 법 시행 2년 경과시점부터 적용하되, 향후 3~7년에 걸쳐 분할적립

## ⑤ 전이위험 (risk contagion) : 필요자본 가산

◇ 전이위험의 정량평가가 어려운 만큼, 「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」 결과를 대안지표(proxy)로, 필요한 완충자본(buffer)의 크기를 산출

※ BCBS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, 바젤 III 운영리스크 산정기준 등 참조(참고5~7)

- (평가지표)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핵심항목을 재구성\*하여 정량·정성 평가

→ 5등급 종합평가등급 산출 (항목별 평가결과 가중평균)

\* 그룹위험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은 '18년말까지 확정

### <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항목 (예시) >

| 구 분      |                    | 평가부문별 주요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위험 관리 체계 |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·역할    | 대표이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 권한확보 등 체계의 적정성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 운영의 적정성        |
|          | 그룹위험 모니터링          | 그룹의 주요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의 적정성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위기상황 대응체계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그룹위험 관리정책, 절차 및 한도 | 그룹위험 및 계열사 전이위험 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그룹위험 한도 설정 및 운용의 적정성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위험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             |
| 전이 위험 관리 | 내부거래·위험집중 관리       | 그룹내 내부거래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금융그룹의 위험집중 인식·평가·관리체계의 적정성      |
|          | 소유·지배구조            | 소유·지배구조의 안정성·건전성·투명성            |
| 이해상충 방지  |                    | 그룹의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체계의 적정성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|

- (필요자본 산정) 종합평가등급에 따라 금융그룹의 총위험자산 (또는 필요자본)의 일정비율을 필요자본에 추가적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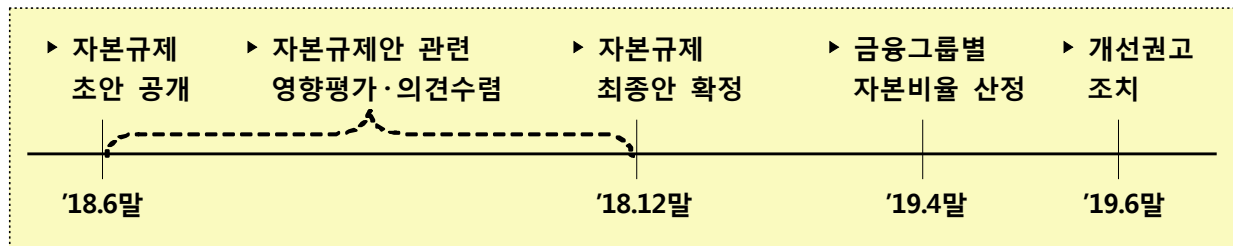
### < 종합평가등급에 따른 필요자본 가산비율 (예시) >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1등급  | 2등급 | 3등급  | 4등급 | 5등급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
| <sup>(1안)</sup> 총위험자산 | 0.5% | 1%  | 1.5% | 2%  | 2.5% |
| <sup>(2안)</sup> 필요자본  | 5%   | 10% | 15%  | 20% | 25%  |



### III 시행 일정

◇ '18.12월말까지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하고, 금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을 토대로 통합감독법안 국회논의 추진



- ▶ '18.6월 말 : 자본규제 초안 공개
- ▶ '18.7월~12월 말 :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
- ▶ '18.12월 말 : 자본규제 최종안 확정
- ▶ '19.4월 말 :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 ('18년말 기준)
- ▶ '19.6월 말 : 자본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권고 조치 (필요시)

- ① (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) 비은행지주회사 · 자회사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 ×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\*

$$* \frac{\sum (\text{자회사등의자기자본}_i \times \text{업종별한도비율}_i)}{\sum \text{자회사등의자기자본}_i}$$

\*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계산방식은 동일하나 업종별 한도비율이 다름

< 비은행지주의 대주주 ·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업종별 한도비율 >

| 구 분  | 비 율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험회사 | min (자기자본의 40%, 총자산의 2%) |
| 종금사  | 자기자본의 15%                |
| 저축은행 | 자기자본의 0%                 |
| 여전사  | 자기자본의 100%               |
| 금투업자 | 자기자본의 0%                 |

- ② (대주주등 발행주식\* 취득한도) 비은행지주회사 · 자회사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 ×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\*

$$* \frac{\sum (\text{자회사등의자기자본}_i \times \text{업종별한도비율}_i)}{\sum \text{자회사등의자기자본}_i}$$

< 비은행지주의 대주주 · 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취득 업종별 한도비율 >

| 구 분  | 비 율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험회사 | min (자기자본의 60%, 총자산의 3%) |
| 종금사  | 자기자본의 100%               |
| 저축은행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여전사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투업자 | 자기자본의 8%                 |

※ 비은행지주는 대주주 ·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룹차원의 한도규제를 적용하므로, 이를 준용하는 통합감독규제의 경우에도 주식은 동일하게 평가

## 1. 비은행지주의 비금융자회사 출자위험 가산 (sliding scale 방식)

- '비은행지주 자기자본 대비 비금융자회사(금융지주법상 지배) 출자액' 5개 구간별로, '비금융자회사 출자액 × 누진비율(8% 등)'을 필요자본에 가산
-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IMF가 '금융지주의 비금융회사 출자에 대한 위험'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제시 ('09년 technical advice)

### < 비은행지주의 비금융자회사 출자위험 반영방식 >

| 비은행지주 자기자본 대비 비금융사 주식 출자금액 | 필요자본 가산비율*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자기자본의 0 ~ 5%               | 8%         |
| 5 ~ 15%                    | 12%        |
| 15 ~ 25%                   | 25%        |
| 25 ~ 60%                   | 32%        |
| 60% ~                      | 100%       |

\* 자기자본 대비 비금융사 출자액이 클수록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금액이 누진 증가

## 2. 은행 · 보험사의 비금융자회사 출자위험 가산 (15% · 60% rule)

- 은행 · 보험사의 비금융자회사(15% 이상 출자) 출자분에 대하여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필요자본에 가산
- ① 개별 비금융자회사 출자액 중 은행 · 보험사 자기자본의 15%를 초과하는 금액 전부
- ② 비금융자회사 전체 출자액 중 은행 · 보험사 자기자본의 60%를 초과하는 금액 전부

### 참고3

### 금융업권별 집중위험 한도규제 개요

- 금융지주 및 개별 금융회사의 집중위험 한도규제는 ①대주주·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취득, ②대주주·특수관계인 신용공여, ③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로 구분

○ 개별법에 규정된 집중위험 한도가 업권마다 상이한 상황

| 구분       | 대주주등<br>신용공여  | 대주주등<br>발행증권 취득  | 동일차주<br>신용공여  | 거액신용공여<br>합계액   |
|----------|---|--|---|---|
| 금융<br>지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은행지주)<br/>Min(자기자본<br/>순합계액의 25%,<br/>출자비율 해당금액)</li> <li>· (비은행지주)<br/>자회사 업종별<br/>한도비율 가중평균<br/>×자기자본 순합계액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은행지주)<br/>자기자본<br/>순합계액의 1%</li> <li>· (비은행지주)<br/>자회사 업종별<br/>한도비율 가중평균<br/>×자기자본 순합계액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은행지주)<br/>자기자본<br/>순합계액의 25%</li> <li>· (비은행지주)<br/>자회사 업종별<br/>한도비율 가중평균<br/>×자기자본 순합계액</li> </ul> | 해당 없음   |
| 은행       | · Min(자기자본의 25%<br>자기자본×출자비율)   | · 자기자본의 1%   | · 자기자본의 25%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거액신용공여기준)<br/>자기자본의 10%</li> <li>· (거액신용공여<br/>총합계액 한도)<br/>자기자본의 5배</li> </ul> |
| 보험       | · Min(자기자본의<br>40% 총자산의 2%)   | · Min(자기자본의<br>60% 총자산의 3%)  | · 총자산의 12%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거액신용공여기준)<br/>총자산의 1%</li> <li>· (거액신용공여<br/>총합계액 한도)<br/>총자산의 20%</li> </ul>   |
| 금투       | · 대주주<br>(특관인 포함)<br>신용공여 금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대주주)<br/>발행증권 취득<br/>금지</li> <li>· (특관인)<br/>자기자본의 8%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| 해당 없음   |
| 저축<br>은행 | · 대주주등 신용공여,<br>예금, 가지급금<br>지급 금지   | · 동일계열기업<br>자기자본의 5%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개별저축은행)<br/>자기자본의 25%</li> <li>· (동일계열저축은행)<br/>연결재무제표상<br/>자기자본의 25%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거액신용공여기준)<br/>자기자본의 10%</li> <li>· (거액신용공여<br/>총합계액 한도)<br/>자기자본의 5배</li> </ul> |
| 여전       | · 자기자본의 50%   | · 자기자본의 150%   | 해당 없음   | 해당 없음   |

## 1. 은행 : BCBS 기준

- ☐ 개별 또는 연결된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는 은행 바젤 III 기본자본의 25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
|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 | 익스포저 한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개별 거래상대방 또는 연결된 거래상대방 그룹 | 25%     |
| 시스템적 중요 글로벌은행(G-SIBs)    | 15%     |

## 2. 보험 : 미국 Model Act / 유럽 Solvency II 기준

- ☐ (미국) 개별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 대한 투자액이 보험회사 인정자산의 3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☐ (유럽) 집중시 거액손실이 우려되는 거래상대방별 자산(주식, 채권, 신용공여 등)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측정
-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및 보험회사 총자산의 3% 등을 기준으로 한 보유비중에 따라 12% ~ 73% 위험계수 적용

| 구 분  | 부가되는 리스크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집중위험 | 신용등급 및 보유비중에 따라 12% ~ 73% |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| 신용등급                      | 보유비중        | 위험계수   |
|      | AA                        | 총자산 3% 초과   | 12% 가산 |
|      | A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21% 가산 |
|      | BBB                       | 총자산 1.5% 초과 | 27% 가산 |
|      | BBB 이하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73% 가산 |

- (도입) BCBS는 '16년부터 '19년까지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를 단계적 도입할 것을 권고

| '16년       | '17년      | '18년       | '19년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0 ~ 0.625% | 0 ~ 1.25% | 0 ~ 1.875% | 0 ~ 2.5% |

\* 단계적 도입은 BIS 권고사항 (적용예시: 스웨덴(2.00%), 홍콩(1.25%), 노르웨이(1.50%) 등)

- (원칙) BCBS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의 도입목적, 지표설정 및 제도운용 등과 관련한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

| 구 분         | 기본원칙   |
|-------------|--|
| ① 목 적       | 과도한 신용팽창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로부터 은행산업을 보호하고 은행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신용을 공급하도록 대비 |
| ② 지 표       | 완충자본 설정시 총신용/GDP 갭을 공통지표로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신호오류 위험   | 총신용/GDP 갭 지표가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에 대비, 다양한 보조지표 및 경제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  |
| ④ 즉시해소      | 위기발생으로 신용수축 우려시 즉각 완충자본 해소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他 감독수단 병행 | LTV 규제 등 여타 거시건전성 감독수단과 병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(조치) 은행이 필요 완충자본 적립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익금의 처분(배당, 자사주 재매입, 임직원 보너스 등)을 제한

- 금융위는 은행·은행지주에 대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여부, 적립수준 및 적립시점 등을 결정\*하고

\* 위험가중자산의 2.5%까지 적립요구가 가능하며, 추가자본 적립시점은 결정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

- 최저 적립기준 자본적정성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은행·은행지주에 대해 배당제한 등 조치 가능

□ 국제기준<sup>※</sup> (바젤 III 개편안, '17.12월)

※ 은행 바젤 III 자본비율은 '총자본'을 '신용 + 시장 + 운영리스크 가중자산 합계액'과 비교하여 산정 (8% 이상이 되도록 관리)

○ 운영리스크 산정 : 원칙적으로 '영업수익 × 위험계수 (12~18%)'<sup>\*</sup>

\* 과거 운영리스크 손실을 경험한 은행의 경우 일정비율을 추가로 가산

○ 운영리스크 산정시 은행의 수입과 역사적 손실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

| 구 분    | 근 거   |
|--------|---|
| 은행의 수입 | 운영리스크 손실은 은행의 수입 규모와 비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역사적 손실 | 역사적으로 큰 운영리스크 손실을 경험한 은행일수록 미래에도 큰 손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음 |

□ 국내 은행업감독기준 (현행)

○ 기초지표법, 운영표준방법, 고급측정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을 산출

| 구 분    | 산출 방법  |
|--------|--|
| 기초지표법  | 과거 3년간 평균 총이익의 1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영표준방법 | 영업영역을 8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영업영역별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(12~18%) |
| 고급측정법  | 은행 자체 내부손실자료와 리스크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측정               |

-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지주 리스크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 ('15.12월 도입, 바젤Ⅱ 이행사항)
- (계량평가 30%) 자본적정성(60%), 재무구조 안정성(40%)을 평가\*
- \* (자본적정성) 연결자기자본비율, 연결기본자본비율, 연결기본자본레버리지비율, (재무구조 안정성) 부채비율, 이중레버리지비율
- (비계량평가 70%) 리스크관리(60%), 재무상태(40%)를 평가\*
- \* (리스크관리) 리스크관리 정책·절차의 적정성, 리스크관리 조직·인력의 적정성 등, (재무상태)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,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
- 리스크평가 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할증(추가자본 적립) 및 기타 감독조치를 실시

< 평가등급별 추가자본 적립 등 감독조치 >

| 등 급         |   | 위험가중자산<br>할증률 | 추가적으로 부과 가능한 감독조치 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|
| 1등급<br>(우수) | + | -             | • 특정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<br>•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계획·약정서 제출 요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0 |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| - |               |  |
| 2등급<br>(양호) | + | -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| 0 |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| - |               |  |
| 3등급<br>(보통) | + | -             | • 특정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<br>•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계획·약정서 제출 요구<br>• 이익배당 축소 등을 포함한 자본확충 협약(MOU) 체결 |
|             | 0 |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| - | 1%            |  |
| 4등급<br>(취약) | + | 3%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| 0 | 5%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| - | 7%            |  |
| 5등급<br>(위험) | + | 10%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| 0 | 15%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| - | 20%           |  |